

“1000만 관광객 이끈다” 담양군 관광도시화 박차

5월 열린 대나무축제 역대 최다 63만명 방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 709억원 확보

담양군이 ‘남도문화 관광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남도문화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목표를 정책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담양군의 대표 축제인 대나무축제와 산타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초 4년 만에 개최된 대나무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더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향토문화 축제로 군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다.

축제가 열린 엿새 동안 역대 최다인원인 63만명이 담양을 찾았고, 약 31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담양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 등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310억원에 달했다.

또 수도권 MZ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담양’

과 도시재생공간을 무대로 한 ‘힙플레이스 투어’, 문화자원을 활용한 ‘아트투어’와 ‘담양에서 일주일 여행하기’, ‘SNS 여행 후기 이벤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형 관광 여행상품을 개발해 2000여명의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했다.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올해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도 조성되고 있다. 담양호 용마루길은 2027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금성산성을 잇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등 최고의 명품 산책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군은 내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는 70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의 1단계 사업으로 ‘담(潭)관광스테이’와 문화적목 여행공간 연출 등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와 예술을 입힌 담양읍 원도심 곳곳도 활력 있는 관광거리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2월 문을 연 담죽다미담 예술구는 현재 15동 30실이 입주, 청년상가와 공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주 거리 공연과 문화행사가 거리를 채우며

매력을 뽐내고 있다.

1년 6개월의 공사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담양문화회관도 ▲공연예술 창작공간 ▲주민참여 문화창작공간 ▲전시공간 ▲문화광장 ▲대공연장이 들어섰다.

지난 4월 준공된 담빛음악당은 죽녹원과 관광제림이 조화를 이루는 추성경기장 일원에 자리잡고 대나무축제 주무대와 남도국제예술제 공연장 등 군민의 공연예술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양군은 안심식당 확대를 위해 수저집 사용과 소규모 음식점 주방 시설 개선사업, 음식관광해설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청결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음식문화개선분야 업무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의 아름다운 경관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 행복한 담양다운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군이 명품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 담양호 용마루길. <담양군 제공>

나주시 “소통·토론으로 문제 해결”... 시민권익위 출범

문제해결형 민·관 협치 기구

나주시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청,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민관 협치 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시민권익위는 다수 복합민원, 애로사항 등을 안건으로 선정, 토론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권의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갈등관리 대상 사업 검토·조정, 시정 권고와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기능도 갖는다.

안건은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한 달 안에 100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분과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 정책 제안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는 행정복지처와 경제환경 2개 분과로 운영된다.

나주시는 시의원과 복지, 농업, 건설, 노무,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9명을 위촉했으며 시장과 국·소장 등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가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오해나 과장, 불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경청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치 기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귀농귀촌은 함평으로 ‘오소’

군, 캐릭터 ‘오소’ 개발

함평군이 귀농귀촌 캐릭터 ‘오소(오소·사진)’를 개발해 청년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한 캐릭터는 함평전지한우의 상징인 ‘소’를 소재로 했으며, ‘함평으로 오라’는 의미에서 ‘오소’라고 이름 붙였다.

또 초원의 농부가 연상되도록 밭짚모자를 쓰고 함평의 친근감과 우호성을 나타내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지난 2월 3종의 캐릭터를 발표했다. 이어 발굴한 캐릭터를 대상으로 디자인화 작업을 했다. 올해 봄 나비대축제 기간



캐릭터를 활용한 상담 행사를 했으며, 지난 6월 캐릭터 로고와 기본형 1종, 응용형 20종을 최종 개발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화순군, 청년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5~34세 25일까지

화순군이 청년들의 스트레스 조절을 돕고자 ‘스트레스 온 앤 오프’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25세~34세)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운영된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1회기: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2회기: 스트레스 배틀 ▲3회기: 내가 바라는 한가지 ▲4회기: 내가 나에게 전

하는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 상담인 ‘마음 건강주치의 상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적 과도기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현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압수

장성군, 30만원 이상 체납 등

장성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를 진행하고 있다.

영치 대상은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과 체납기간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수차체 문자 메시지 전송과 서면 안내에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군은 먼저,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압수하고 있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즉시 반환되며 카드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061-390-7379)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흥군, 내달 1~2일 8개국 초청 수출 상담회

장흥군은 다음 달 1~2일 해외 8개국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7월 29일~8월6일) 기간에 맞춰 추진한다.

장흥군은 오는 18일까지 수출 상담회에 참가할 지역 업체를 모집한다.

장흥군이 초청하는 국가는 미국(쌀·김류), 남아프리카공화국(김·장류), 중국·사우디아라비아(모든 품목), 호주(막걸리·장류 등 한국 식품류), 베트남(김·버섯 등), 인도(면류·장류·버섯 등), 러시아(한국 식품류) 등이다.

수출 상담회에서는 수출 유망자 감사패 수여,

맞춤형 수출 상담회, 장흥군 특산품 전시, 참여업체 사업장 방문 등이 진행된다.

장흥군은 국가별 관심 품목과 지역 기업 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수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사우디아라비아·중국 등 4개국과 2년간 국가별 40만달러 상당 수출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수출유통팀(061-860-5981)과 정남진 장흥 직거래지원센터(010-2290-0185)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